

김소월의 산유화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의 경우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 교환교수

1.

김소월의 시 가운데 가장 단조로운 시적 형식을 드러내면서도 정서의 깊이를 잘 간직하고 있는 작품으로 「산유화(山有花)」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산과 꽃과 새라는 자연 속의 친숙한 소재가 등장한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적인 언어가 그대로 시 속에 사용되면서도 훌륭한 시적 언어로 기능하고 있다. 전통적인 율조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언어를 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김소월의 시는, 바로 그러한 언어의 특성에 기초하여 토속의 정서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험의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일상의 언어는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으며, 짙은 호소력도 지닌다. 시적 언어의 토착성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는 민중의 정서가 언어와 밀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김소월의 시에는 추상적인 개념어가 거의 없으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동태를 드러내는 토착어가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그의 시가 실감의 정서를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언어적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사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지네

2.

「산유화」는 그 시적 형식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김소월의 시 세계를 대변하는 작품으로 주목되어 왔다. 이 작품을 놓고 김동리는 ‘청산과의 거리’(『문학과 인간』)라는 말로서 소월시의 본질을 논한 바 있다. 그는 이 시가 자연을 동경하는 시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의 화자가 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연에 귀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주목한다. 그것은 ‘저만치’라는 시어에 의해 드러나는 거리 때문이다.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이 시적 화자와의 사이에 ‘저만치’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해석은 김용직 교수 『한국문학의 비평적 성찰』에 의해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시적 언어가 지니는 애매성을 이 시의 경우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라는 구절의 ‘저만치’를 김동리가 개념 지시에 불과한 거리의 뜻으로만 읽는 것을 비판한다. 오히려 산과 꽃에 담겨 있는 화자의 정감을 주목하면서

‘저기 저 산에 피어 있는 꽃은 저렇게도 소담하게 외롭게 또는 앙징스럽게 피어 있네’라는 감정이 이 구절에 곁들여져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저만치’라는 말이 장소와 거리(저기 저쪽), 상태와 정황(저렇게, 저와 같이)을 모두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해석에도 불구하고 김동리가 주장한 자연과의 거리에 대한 논의는 뒤의 연구자들에게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존재론적인 의미까지 여기에 덧붙여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 「산유화」는 자아와 세계의 불연속을 잘 표상해 주고 있다. 시인은 자연(꽃이 피고 지는 산)과 합일하려고 하지만 항상 ‘저만치’의 거리 밖에서 거부당한다. 그렇다면 그를 용납하지 않는 자연이란 무엇인가. 〈산유화〉의 자연은 동시에 소월시 전체를 대표하는 자연이기도 한데 시인은 그것을 다만 침묵하는 산, 기호로 제시되는 산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중략) 하염없이 꽃이 피고 지는 산의 모습이란 일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광경같이 보인다. 그러나 반면 꽃을 피우고 지게 하는 자연은 인간의 논리를 벗어난 ‘저만치’의 존재이며 절대 차원의 섭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죽음과 재생의 끝없는 회귀의 질서일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절대 자유의 원리일 수도 있다. (오세영, 『한국 낭만주의 시 연구』, 314면)

(2) ‘산에/산에’처럼 행을 병렬한 것은 율격의 변화를 의도한 것과 함께 자연의 공간적 배치를 시각화한 것이다. 문제는 〈꽃〉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나라는 데 놓여진다. 단적으로 말해서 꽃은 자연 위에 살아있는 것들의 표상이며 동시에 인간의 객관적 상관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산에 피는 꽃은 식물로서의 꽃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모든 생명있는 것들, 혹은 존재의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것은 모든 존재들이 지닐 수밖에 없는 운명의 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자로서 홀로의 존재로서 지상 위에 놓여져서 덧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 가로놓인 공간적 거리이며 시간적 거리이고 동시에 영혼 사이의 운명적 거리인 것이다. 즉 모든 존재의 본질을 서로 〈혼자 있음〉, 〈떨어져 있음〉으로

과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항상 '너와 나/가고 옴/옛날과 지금' 등 대립적인 거리 감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소월의 태도와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 34-35면)

앞의 인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유화」에서 여전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저만치'라는 시어임을 알 수 있다. 두 분의 시 전문가들이 모두 절대적인 거리의 문제를 「산유화」를 두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해석은 시 자체의 텍스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거나 해석의 주관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 자신은 김용직 교수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저만치'라는 말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혼자서'라는 시어의 해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다.

'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제2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부분이다. 이 구절에서 '저만치'가 거리와 정황을 모두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혼자서'라는 말의 의미이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단어이지만 '저만치'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 인용된 글의 논자들처럼 이 말에 고립감이나 단절감 등과 같은 정의(情意)적 의미를 붙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지니는 이같은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산에 꽃이 혼자서 피어 있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다는 뜻만은 아니다. 오히려 산에 있는 꽃은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저 혼자 힘으로' 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혼자서'라는 말을 '외로이 홀로 떨어져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를 다시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 (1) 그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
- (2) 그는 혼자서 그 일을 마쳤다.
- (3) 기계가 혼자서 돌아간다.

앞의 예문에서 쓰이고 있는 '혼자서'라는 말은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 (1)

의 경우는 '외롭게 홀로'라는 의미가 가능하다. (2)는 '자기 힘으로 아무 도움도 없이' 라는 뜻이다. (3)은 '저절로' 또는 '자연적으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세 가지의 예문 가운데에서 쓰이고 있는 '혼자서'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에서 쓰인 '혼자서'의 경우 그 의미를 함부로 단정할 수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산유화」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에서 '혼자서'라는 말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시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산에 피는 꽃은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데도 저렇게 저만치에서 혼자 저절로 피어 있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는 제1연에서 노래하고 있듯, 산에서 피고 지는 꽃이 보여주는 자연의 순환적인 질서, 자연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산유화」에서 제1연과 제2연의 의미를 서로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이제 나머지 제3연과 제4연의 의미는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산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에 어울려 사는 것이 새이다. 그러므로 제3연에서 산과 꽃과 새가 모두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이것은 자연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며, 바로 이 대목이 이 시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연은 제1연과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시적 의미의 종결이 이루어진다.

3.

「산유화」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이다. 산에는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진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순환적인 질서를 말한다. 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본다면,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산에서 혼자 저절로 피고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연한 이치에 따라 자연은 그렇게 늘 순환한다. 이 시의 단조로운 형식과 간명한 표현 속에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자연의 이치와 순환과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새도 함께 살아간다. 산에 피는 꽃과 산에서 우는 새가 서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조화이다. 이 시에서 자아와 세계의 단절을 읽어낼 수 있다가 운명적인 거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그리고 자연과의 거리라든지 존재의 단절이나 고립이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할 뿐이다. 산에서 저절로 피고 지는 꽃, 그 속에 살고 있는 작은 새, 이런 것들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산유화」가 아닌가?